

#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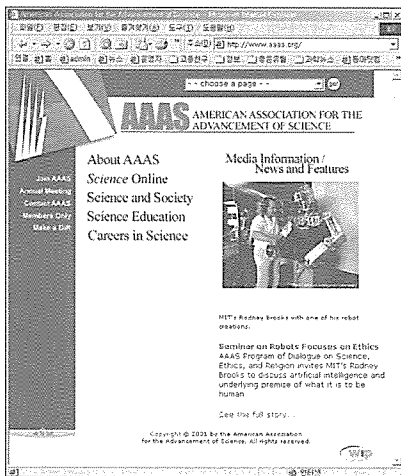
## 국립중앙과학관 (www.nsm.go.kr)



초·중·고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에게 유용한 사이트이다. 이곳의 자랑거리는 인터넷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플래시를 이용한 다양한 그래픽 자료들이다. 이 플래시 데이터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관련 내용을 그래픽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딧불이의 생애를 만화로 차근차근 보여주는 '만화로 배우는 과학', 발명에 대한 기본원리와 이해를 도우며 발명경진대회에 출품돼 입상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발명교실', 멀티미디어 과학학습 체험공간인 '사이버 과학교

실', 퀴즈 방식을 이용해 과학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는 '놀이랑 배움이랑', 자연사·과학전람회·이공학전시품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둔 'Science DB', 과학관 인터넷방송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퀴즈방식으로 꾸민 '과학문제 Q/A'와 과학의 호기심을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백문백답'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코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어린 학생층을 대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사이트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미국과학진흥협회 (www.aaas.org)



지도와 교육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다수의 사이트가 그렇듯이 미국과학진흥협회 사이트에 들어보면 깔끔해보이지만 많은 정보는 있지 않아보인다. 하지만 메뉴 하나를 누를 때마다 나오는 무수히 많은 정보가 담긴 페이지들을 보면서 역시 미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오른쪽에 표시되는 뉴스는 최근 MIT 인공지능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 연구와 관련해서, 로봇세미나에서 초점이 된 미래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윤리학적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AAAS의 뉴스 코너에는 매달마다 AAAS에서 진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담고 있다. 사이언스 온라인에는 주마다 새로운 과학정보를 알려주는 사이언스 매거진, 매일마다 과학뉴스를 제공하는 사이언스 뉴스가 있다. 사이언스와 사회라는 코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과학과 윤리, 법, 그리고 정책 등을 세워가는 데 참고가 되

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다. 사이언스 교육 코너에는 과학교육에 도움이 되는 책과 자료를 모아서 서비스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사이언스 온라인과 함께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유료 회원에게만 서비스하는 유료 사이트이다. 그런데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과 관련된 직업과 연구소의 인력을 연결해주는 과학인력정보 사이트인 캐리어인 사이언스다. 즉 AAAS는 과학에 관한 뉴스와 정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정보까지 제공해, 과학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터전의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못하다. 좀더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ST**

朴應緒 (동아시아언스 기자)

이 곳은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과학기구나 과학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학진흥협회 사이트로 약자로는 AAAS로 쓰여, '트리플-A-S'라고도 부른다. 13만여 회원과 2백75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 최신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공식기관으로 과학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을 위한 과학